캔버스 오일 페인팅의 禪畵 '생각 이전'

김레이시 개인전 '생각 이전(Before Thinking)'
서울 '갤러리 한옥'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언어끊어진 '생각 이전' 세계의 그림으로
한지 수묵 아닌 캔버스 오일 페인팅 선화
직관의 선(line)이 만든 선(禪) 세계 그려


김레이시_Before Thinking 2_ oil on canvas(130.3×291×2.8cm_2022)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 작품은 직관의 산물이며 내면의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입니다."

미국에 활동 기반을 둔 현대화가 김레이시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북촌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 '생각 이전(Before Thinking)'을 개최한다.

김레이시의 그림은 선(禪)의 세계다. 주로 한지에 수묵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선화(禪畵)가 아닌 캔버스에 오일 페인팅 선화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말로 그릴 수 없고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생각 이전'의 세계를 작품 20여 점을 통해 선보인다.

순수평면화의 장르에서 추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그림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일은 쉽지 않다. 추상화라는 장르 자체가 쉽지 않은 장르이고, 선의 세계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선화의 세계는 선사가 토해낸 한 순간의 할(喝)과 같아서 이해와 설명의 영역이 아닌 '느낌'과 '공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이전의 김레이시가 만난 직관의 세계가 화가 김레이시의 직관의 세계로 옮겨지면서 그림은 시작된다. 언어의 세계가 해결(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느낌들이 다양한 색채의 선이 되어 캔버스를 채운다. 그 직관의 느낌들은 '생각 이전'으로 대변되는 것으로, 말과 글이 끊어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리 같기도 하고 빛이거나 그림자 같기도 한 선들이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 꿈틀거리며 뒤엉킨다. 그렇게 선(line)은 직관의 흐름을 따라 그려진 선(禪)이 된다.

'선화'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선(禪)이라는 것 자체가 말과 문자로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말이나 문자로 설명을 하는 순간 그것은 '선(禪)'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명의 세계가 아닌 직관적 느낌의 세계 선, 선화는 바로 그런 세계의 회화적 표현이다.

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층들과 색의 조합으로 정의된 선 기반 언어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작품에 임할 때마다 자신의 가장 진실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쓴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근원적인 진실함에 다가가려면 행동함과 실재함의 직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하며 그 본성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선(禪)이라고 말한다. 그는 "선은 우리가 이 본성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버려두었지만 그래도 결국 언제든 다시 스며들 듯 살펴보고 마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 번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 이 분명한 접근은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옮겨져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페인팅의 과정은 나 자신만의 길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이어짐을 만들어낸다. 나의 작업은 일불승불교 혹은 커다란 수레라고 불리는 것에 함께하며, 그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할 때의 공감 조화 안에서 전부를 찾아갈 수 있음을 담아낸다"고 말한다.

그가 작품에서 추구하는 '본성'은 분별을 통해 옳고 그름의 과정을 겪기보다는 이미 있어왔던 그 자체로 돌아갔을 때 마땅히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김 작가가 페인팅으로 나타내는 작업은 마음의 본래 자리를 향한 과정들 중 하나로 직관을 통한 작업이다. 각각의 페인팅의 내용들은 찰나의 경험들을 모은 것이며, 이것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그들 자신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창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MFA Pratt Institute NY, USA 등 서구에서 수학한 김 작가는 2015년 열었던 개인전 'In Between'에서 숭산 스님의 화두 '모른다'를 옮긴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지식이 아닌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직관적인 '행(行)'을 통해 본인의 마음을 반추하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페인팅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었다. 그래서 김 작가의 그림은 수행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수행의 시간인 것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과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조율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통찰이다. 미묘한 찰나의 순간들에서 찾아낸 이미지들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선(禪)은 '생각을 쉬는 것'이다.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레이시는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림은 '생각 이전'의 풍경이다.

김레이시는 '2010 Dialogue of Silence / 팝아트팩토리 서울'을 시작으로 1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길 위에 선 물건들 / 스페이스 선 플러스 서울'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전시 문의 (02)3673-3426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답사 진행

'신들의 세계, 도리천의 세상 속으로'
8월 24일, 31일, 9월 7일 낭산 현장
사천왕사 터 출발 전 황복사 터까지


前 황복사 삼층석탑


사천왕사 녹유 신장벽전


사천왕사 동 귀부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6월 15일~9월 12일)'과 연계하여 경주 낭산의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답사프로그램 '신들의 세계, 도리천의 세상 속으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4일, 31일, 9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낭산 현장에서 진행된다. 답사프로그램 '신들의 세계, 도리천의 세상 속으로'는 현재 열리고 있는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의 여운을 현장에서 느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은 신라인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과 낭산에 남아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전시로 전(傳)황복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금제불상 등 낭산 관련 유물 389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별전과 연계한 답사 프로그램은 사천왕사 터에서 시작해 낭산 고분군, 선덕여왕릉, 능지탑을 거쳐 마지막으로 전 황복사 터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별전시를 기획한 이현태 학예연구사가 현장 설명을 담당하며, 특별전에는 미처 담지 못한 낭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낭산 유적의 입지에 담긴 의미 등 깊이 있는 해설을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022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http://gyeongju.museum.go.kr - 교육·행사 - 교육프로그램)에서 가능하고, 별도의 참가비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날씨 등을 감안해 참가자는 각 회별 성인 20명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낭산의 시원한 소나무 숲을 거닐며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만나는 낭산 문화유산의 감흥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4)740-7500 박재완 기자

도신 스님 〈웃는 연습〉 출판기념 북콘서트

9월 4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사인회 · 시인과의 토크 등



"초대합니다. 날개 잃은 매미 앉아 울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신 당신께 목청 돋웁니다."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사진〉이 9월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집 〈웃는 연습〉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도신 스님은 지난 6월 첫 시집 〈웃는 연습〉을 출간했다. 2018년 시인으로 등단하고 뒤늦게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북콘서트는 사인회, 여는 시, 행사 소개, 축사 및 내빈소개, 시인과의 토크, 시낭송, 밴드 색즉시공 공연, 시극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문의 (041)664-2001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